

# 현대 시비평에 나타난 성별화 전략

— 김현, 김윤식의 초기 시비평을 중심으로 —

윤지영\*

1. 서론
2. 식민지 시대 시문학에 대한 메타 담론의 여성화 전략 양상
  - 2.1 '패배적 여성주의'와 '긍정적 여성주의'의 이원화-김현
  - 2.2 민족의식의 메타포로서 신비화된 여성성-김윤식
3. 60년대 비평의 여성화 전략의 효과
  - 3.1 세대론적 전략으로서 성별의 위계적 이원론-김현
  - 3.2 근대문학의 필요조건으로서의 타자성-김윤식
4. 결론

---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문초록

1960년대 말에 들어 초기 식민지 시대의 시를 여성성의 메타포로 설명하는 비평 담론들이 자주 등장한다. 다른 시기가 아니라 하필이면 1960년대 말에 초기 식민지 시대의 시작품들을 여성적이라고 규정하는 논의들이 잇달아 생산된 것은 1960년대 형성되고 있던 담론의 한 효과이자 60년대 담론 형성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김현의 시비평에서는 전형적인 위계적 이분법 안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 여성성의 관념을 동원하여 60년대 세대인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50년대 세대를 극복한다. 이는 50년대의 문학인 혹은 문학적 경향이 20년대의 그것과 여성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라는 담론을 구축함으로써 수행된다. 한편 김윤식은 여성적인 것의 타자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일상시에는 혼돈과 죽음으로 배제되던 여성성이 남성적인 것의 전형인 억압적 피시즘의 시기에는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편향적인 것은 시의 미학적 품위를 유지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도 긍정된다. 김윤식은 이와 같은 여성성의 개념을 빌어 종래에 비판받던 신문학 초기의 시 일단을 당당히 문학사로 재편입시킴으로써 주체적인 문학사 구축의 난점을 해결하고자 하나, 여성성의 타자성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핵심어 : 식민지 초기시, 시비평, 담론, 성별화, 여성성, 민족주의, 위계적 이원론, 타자성

## 1. 서론

한국 문학, 특히 시가 문학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여성의 타자에 의해 전유되어 온 기이한 역사가 있다. 소위 말하는 ‘여성 화자’에 의해 불리워졌다고 일컬어지는 일군의 시가들이 그것이다. 고려가요에서부터 조선 시대 연군지정(戀君之情)을 읊은 시조들, 그리고 정철의 삼미인곡(三美人曲) 등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화자들은 여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러한 작품은 여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대문학 초기의 시들에게도 적용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여성적이라고 불리워지는 작품들의 생산자와 텍스트의 특성 간의 관계를 따져볼 때 드러난다. 이들 여성적인 작품 가운데는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제 창작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여성적이라는 수식어로 규정된다. 즉, 텍스트에 대한 미학적 가치 평가가 성별화의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전략이 야기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수사는 특히 신문학 초기시들에 대해 이루어진 비평 담론에서 자주 보인다. 주로 60년대 말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이들 담론에서 20년대 시문학은 여성적이라는 말로 가치 평가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식민지 초기 시문학을 여성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흥미롭다.<sup>1)</sup> 물론 선

1)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나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에서만 해도 이런 성별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20년대의 낭만적, 혹은 퇴폐적 감상성을 ‘사춘기의 소녀들이 지은 감상적인 작문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는 동시대의 소설 문체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20년대 시의 특수성을 지칭

행 연구에 따르면 20년대 담론들은 이미 그 시기에 성별화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었다.<sup>2)</sup> 그러나 애국가사나 시, 시사 논평 등에 여성적이라고 할 만한 재현특성이 나타나는 문제와 이러한 재현 특성을 ‘여성적’이라고 명명하는 문제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무차별적인 현상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또 명명하는 메타적인 작업은 다분히 가치 평가적이며 따라서 권력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식민지라는 특정 시기의 시문학을 여성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왜 하필이면 60년대 말에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전략의 양상과 효과는 무엇인가를 밝혀보려고 한다.<sup>3)</sup> 이를 위해 텍스트로 선택한 김현의 「여성주의의 승리」<sup>4)</sup>와 김윤식의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sup>5)</sup>은 신문학 초기의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작품을 낳게 한 상상력의 원천, 혹은 발상법의 탐구를 글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탐구의 결과를 여성성, 혹은 여성 편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성이 많다. 물론, 이들이

---

하는 변별적 개념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별을 핵심 키워드로 끌어들이는 메타 담론이 60년대 이후에 출현했다는 것은 심상하게 볼 일이 아니다.

- 2) 예컨대, 고미숙은 한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의 메타포가 영웅에서 연인으로 바뀌는 순간, “다방면에서 조선적인 것들에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들이 착색되어 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pp.62~72 참조).
- 3) 이러한 문제 의식은 궁극적으로 장르 구분과 문학사 기술을詹代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이다. 만약 서정시가 여성적이고 소설이 남성적이라는 식으로 성별화된 것이라면 이는 장르라고 하는 공시적이고 보편적인 학문 체계의 수립 과정에 성별화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후대에 들어 신문학 초기의 문학을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문학사 기술에 성별화 전략이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김 현, 「여성주의의 승리」, 『현대문학』 178, 1969.10).
- 5) 김윤식,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 『근대한국문학』(일지사, 1973).

‘여성적’이라는 수사로 설명하는 작품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구체적인 함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용한 ‘여성적’이라는 수사가 카프 계열과 주지적 모더니즘을 제외한 식민지 시기의 주요 시인은 거의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보면<sup>6)</sup> 식민지 초기 시문학 전반에 해당하는 특징으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이 두 편의 비평담론에서 식민지 초기의 시문학을 여성적이라고 규정하는 논리와 근거를 찾는 일로서, 2장에서 주로 행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성별화 전략의 숨은, 혹은 드러나는 의도를 추적할 것이다. 이 두 번째 연구과제는 근대 초기 시문학에 대한 여성화 논리가 위치해 있던 60~70년대의 담론적 상황을 살핌으로써 수행될 것이다.

## 2. 식민지 시대 시문학에 대한 메타 담론의 여성화 전략 양상

### 2.1 ‘패배적 여성주의’와 ‘긍정적 여성주의’의 이원화-김현

1969년에 발표된 김현의 글은 ‘한국인의 상상력의 편향’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쓰여진 글이다. 그는 여기서 한국 문학사 초기의 시문학이 상징주의적이라는 초기 문학사의 견해들을 수궁하면서도 그

6) 김현의 경우, 주요한, 김억, 황석우, 김소월, 그리고 한용운의 시를 여성적이라고 했으며, 김윤식은 이들 이외에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등의 시문학파와 홍사용과 이장희, 모운숙, 심지어 이육사와 유치환의 시 일부도 여성편향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향과 수용의 미숙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지향적인 문학사 기술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0년대 전후의 시문학이 상징주의적인 것은 한국적 상상력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

‘여성주의’라는 용어는 그 과정에서 ‘한국적 상징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안된다.<sup>7)</sup> 그러나 그의 글 어디에서도 여성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구어 자유시’의 형식과 ‘자유로운 감정 표출’의 시를 여성주의라고 부르기로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여성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의 시 분석을 쫓아가며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김현이 ‘여성적인 것’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사향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김현에게 있어 여성적인 것은 ‘실연(失戀)’이라는 테마를 ‘탄식·슬픔·한숨’ 등의 정조로 표출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이는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상징주의에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말라르메적 고뇌보다는 집요한 패배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모든 사태를 여성 특유의 탄식으로 바꿔 버리는 한국적 패배주의는 초기의 한국 상징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역사 의식의 결여로 인한 상징주의의 여성화.<sup>8)</sup>

위의 인용한 부분은 김현의 이원론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부분

7) 김현, 앞의 글, p.105.

8) 앞의 글, p.119.

이자 이 글의 문제적인 지점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한국적 상상력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패배주의로 환언된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러한 패배주의를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여성 특유 탄식’과 연관짓고 있다. 그리고 패배주의의 원인, 즉 여성 특유의 탄식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는 마지막 문장은 그 원인을 역사의식의 결여라고 제시한다.

자기 한계의 극복과 패배, 역사의식의 함양과 결여는 김현의 「여성주의의 승리」를 지지하는 두 개의 주요한 이원론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후자의 항, 즉, 자기 한계에 함몰되는 것과 ‘역사의식의 결여’를 ‘여성 특유의 탄식’과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묶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한, 황석우, 김억, 그리고 김소월 등이 이 ‘나약하고 부정적인 여성주의’의 전형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여성주의를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매도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한용운을 ‘여성주의의 승리’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sup>9)</sup> 그의 여성주의가 긍정적인 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 즉 역사의식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구조는 ‘자기만의 사랑’, ‘슬픔의 제스처’, ‘탄식의 포즈’로 ‘자신의 안위·초월만에 집착하는 소승적 태도’로 일관되어 왔다.<sup>10)</sup> 그러나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다면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한용운과는 달리 20년대 초기 다른 시인들이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한 김현의 설명이다. 그 차이의 원인은 ‘정열’이다.

9) 앞의 글, p.122.

10) 앞의 글, p.122.

과거는 척결하려 했지만 끈질긴 거머리같이 그들의 의식 속에 달라붙어 있고, 새것은 완전히 체질화되지 않는다. 이때에 긍정적으로 자기를 표출하는 길은 이 모순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모순을 야기시킨 한국사회의 구조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정열'이 많은 것이다.<sup>11)</sup>

정열의 과잉이 역사의식의 결여를 낳았다는 위와 같은 인식은 정열의 과잉은 곧 부정적 여성주의라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정열, 감성, 서정, 낭만 등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평가는 한용운의 여성주의적인 작품이 '초월적이고 비감각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데에서도 나타난다.<sup>12)</sup>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역사의식, 곧 대승적 태도는 타자의 자리를 전제로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서, 역사의식이 대승적이며 공적인 영역과 친연성을 맺는다면, 정열은 소승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결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의식을 고리로 하여 정열의 과잉과 감각적 사랑, 그리고 사적 영역이 부정적 여성주의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시인들의 생물학적 나이와 연관 지어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11) 앞의 글, p.117.

12) 한용운의 작품에는 “감각적 사랑이 갖는 질투·시선, 스타달이 쓰는 의미의 사랑”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사랑에는 서정적 요소, 낭만적 요소가 끼여들 틈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김현, 앞의 글, p.120) 물론 김현은 한용운이 이러한 초월적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초월적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극복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용운의 시에 나타난 사랑이 ‘초월적’이라는 것과 한용운이 초월적인 것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할 때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전자의 경우 김현이 대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20대 초반의 시인들이 보여주는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며, 감정 표출적인 사랑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소승적 태도와 유개념이자 대승적 태도를 대개념으로 갖는다.



당시 20년대 부정적인 여성주의의 시인들이 모두 20세였음을 곳곳에서 지적하면서<sup>13)</sup> 20세 전후의 나이는 기성 윤리의 장단점과 새로운 가치관의 장단점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sup>14)</sup> 이러한 언급에 따르면, 역사의식의 유무는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른 발달 심리적 단계와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조응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sup>15)</sup> 또한 정열에 내재해 있는 부정과 전복의 힘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리는 나이가 세계 인식과 자아 확립에 중요한 변수임을 인정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한데, 한용운과 비슷한 연배의 최남선이나 이광수를 상기해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이 김현이 말하는 바와 같은 역사의식을 갖춘 것은 아니고 보면, 생물학적 나이가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충분한 조건은 못된다.<sup>16)</sup>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년과 성인, 미숙과 성숙의

---

13) 「불놀이」가 발표된 19년은 식민지 치하에서 가장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다. 그 19년에 주요한이 19세, 김억도 19세, 황석은 22세, 이상화는 19세, 박종화는 18세이다.(한용운만이 예외적으로 42세이다. 그의 『님의 침묵』은 49세에 발간된다) 20세 전후라는 이 나이는 모든 사물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자기 감정의 한계 내에서 바라보는 나이이다. 이 19세 전후의 낙관주의적 시인들은 자유시를 통해 마치 자유연애를 통해서 그러하듯, 자기 감정을 해방한다. 그리고 자기 감정의 해방은 무의식중에 민족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번져간다. 그러나 19년 이후의 일제의 압력은 점차 가중된다. 그리하여 30년대에 이르면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앞의 글, p.110).

14) 앞의 글, p.117.

15) 이 20대라는 생물학적 나이는 김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50년대 문학인들을 설명하는 것도, 또 60년대 문학인들을 설명하는 것도 20세를 전후하여 굽직한 한국사적 사건을 체험했다는 것에 의한다. 즉, 50년대 문학인들은 20대에 해방과 전쟁을 체험했다는 점에서 동일 세대로 묶일 수 있으며, 60년대 문학인들은 20대 초반에 4·19를 체험했다는 점에서 50년대 문학인들과 변별됨과 동시에 하나의 세대를 이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생물학적 나이는 곧 “세계와 현실을 보는 세계 저망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으리라는 추측”의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테러리즘의 문학 : 50년대 문학 소고」 참조).

이원론이며, 양항 가운데 성숙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숙 대 성숙의 이원론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원론과 쉽게 유착되는 이원론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김현은 '실연'이라는 테마를 '탄식·슬픔·한숨·사랑' 등을 주로 표현하는 한국 문학의 한 흐름을 여성주의라고 명명하면서 한국 문학의 원형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이러한 특징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여성주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패배적인 여성주의의 원인을 역사 의식이 결여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는 정열, 미숙, 청년, 그리고 감각적인 것과 소승적, 즉, 즉자적인 것 등의 자질을 여성적인 것으로 귀속시키는 여성성에 대한 전형적인 관념의 재생산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 여성성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정립된다. 가령, 김현의 '긍정적인 여성주의'라는 표현이 '여성주의'에 대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긍정적인 여성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들은 전형적으로 남성성에 대한 기호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김현의 패러다임에 긍정적인 여성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여성주의와 긍정적인 남성주의의 대립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2 민족의식의 메타포로서 신비화된 여성성-김윤식

김윤식 역시 신문학의 발상법의 하나로 '여성편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김현과 달리 이 용어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그의 '여성편향성'은 젠더적 의미를 지닌다.<sup>17)</sup> 그리고 이 여성 편향성이 나타나는 양상을 다섯 가지로 항목화

16) 김현, 앞의 글, p.120.

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예를 든다.<sup>18)</sup>

그러나 그의 작품 분석은 상당히 피상적이며, 전체 글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윤식에게 있어 신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편향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보다 그가 이 글에서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의식에 관한 것이다. 즉, “민족의식의 갈등이 어떠한 문학적 상징 혹은 이미지로써 객관적 상관물을 전개시켰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시의 예언자적 기능과 더불어 여성편향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는 먼저 시와 예언이 융합상태였던 고대와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의 예언자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서 그가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의 민족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거나 타민족의 지배하에 놓일 때, 시인은 무엇보다도 선명한 예언자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sup>20)</sup> 그리고 박용철의 「시적 변용에 대하여」가 ‘시의 지향성으로 이러한 예언적 기능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라고 하여 일부를 인용하는데<sup>21)</sup> ‘무명화(無名火)’, ‘심두(心頭)’

17) 여성, 혹은 여성적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 혹은 남성적인 것을 대개념으로 갖는 이항(二項) 가운데 한 축이라고 설명한다.(김윤식, 앞의 글, p.457).

18) ①상당히 막연한 고아의식, 즉 잃은 모성을 향한 유아의식-홍사용, 이장희, ②남을 향한 지향성-한용운, ③sister-complex-정지용, 박용철, 김영랑, ④anima, animus-이육사, 유치환, ⑤스타일로서의 여성운(韻)-주요한, 김억,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등이 그것이다.(앞의 글, p.460).

19) 앞의 글, p.449.

20) 앞의 글, p.450.

21) “시인으로서나 거러 사람으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두에 한 점 경경(耿耿)한 불을 질르는 것이다. 로마(羅馬) 고대에 성전 가운데 불을 정녀들이 지키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자결할 수도 있고 연기와 화염을 품으며 타올 수도 있는 이 무명화(無名火), 가장 조그만 감촉에도 일어서고, 머언 향기

에 타고르는 '불기둥' 같은 박용철의 표현을 비중있게 끌어들이 시에 앞서는 것, 즉 시정신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주목할 것은 김윤식이 이 선시(先詩)적인 무명화를 민족의식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명화'의 은유는 김윤식의 논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뼈대로 사용된다. 특히 '무명(無名)'일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갖으며, 만약 선불리 이름을 붙이게 되면 '어떤 권력의 신분화가 되고, 따라서 권력에 대한 노예'<sup>22)</sup>가 된다는 무명화의 축자적 의미가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이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고, 규정할 수도 없으며, 이성의 논리로 잡을 수도 없는 그 무명화의 성질은 젠더로서의 여성성에 드리워진 전형적인 함의 가운데 하나이며, 김윤식은 그러한 점에서 무명화를 매개로 '민족의식'과 '여성적인 것'을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설 속에서, 죽음의 모습이 여성의 얼굴로 되어 있고, 죽음 자체의 주체가 여성의 소관임은 흔히 쓰이는 '운명의 여신'이라는 말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리하여 어머니인 여성은 어둠의 얼굴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여기로 귀저(歸著)하는 혼돈이네 허무인 것이나. 그것은 마(魔)의 심연이며, 대지의 내부이며, 번식의 가면의 모습을 취한다.<sup>23)</sup>

위의 인용은 보봐르에 입각하여 여성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

도 말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모것을 만날 때에나 어린 호랑이 모양으로 미리 겁 없이 만져보고 맛보고 풀어볼 수 있는 기운을 주는 이 무명화, 시인에 있어 이 불기운은 그 시에 앞서는 것으로 한 선시적(先詩的)인 문제이다.(박용철, 「시적 변용에 대해서」, 《삼천리문학》 1집, p.133).

22) 김윤식, 앞의 글, p.453.

23) 앞의 글, p.458.

이다. 여기에서 그는 혼돈과 죽음과 심연으로서의 여성적인 것이 평상 시에는 '부장제사회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성적인 것에 의해 타자화되면서 형성된다고 정리한다. 이어서 이처럼 평소에는 '금기사항'으로 배제되던 '여성적인 것이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그 사회가 위기에 놓일 때'임을 강조한다.<sup>24)</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박용철은 이념과는 거리가 먼 순수서정시를 강조했고, 집단화된 관념보다는 개인의 내면에 '어두운 면, 우수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sup>25)</sup> 또한 박용철 그 자신은 무명화를 민족의식이라고 확언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은 무명화를 민족의식으로 파악하고 식민지 시기의 '한국 문인이라면 누구나 저 심두에兢兢(耿耿)한 불기둥을 지녔던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의 정녀들'처럼 '무명화(無名火)'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문학의 시와 시인의 사명<sup>26)</sup>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가 왜 근대초기 시들의 여성 편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무명화의 은유를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이유로 민족정신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하였는가, 더불어 시의 예언자적 기능과 여성 편향적 특징은 어떠한 이유로 한 편의 글에서 핵심 키워드로 동시에 제시되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은 그의 평론이 놓인 60년대 말 70년대적 상황 속에서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24) 앞의 글, p.458.

25) 김용직, 「시문학과 연구」, 이재선 외, 『한국근대문학연구 : 일반문학적 고찰』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p.262.

26) 김윤식, 앞의 글, p.453.

### 3. 60년대 비평의 여성화 전략의 효과

#### 3.1 세대론적 전략으로서 성별의 위계적 이원론-김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현은 서구지향적인 문학사를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의 승리」를 시작한다. 이러한 비평은 비평가의 임무를 모색하고 정당화시키는 작업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초창기 시문학이 단순히 서구의 것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했고, “그것의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한 뿌리 드리우기가 성공했는가를 밝혀” 내야 했다. 그는 이러한 사명을 상상력의 근원을 탐구하는 일로서 수행해 나간다.<sup>27)</sup> 문제는 그 상상력의 일단으로서 여성적인 것을 주목했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김현이 부정적인 여성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부정적 여성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 부정적 여성주의를 타사의 사리에 놓음으로써 주제의 자리에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용운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여성주의는 그 표면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다음과 그의 다른 글과 비교할 때 확인할 수 있다.

그(청마: 인용자)와 서정주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그의 시가 남

27) 이광호는 80년대의 비평 전략을 분석하는 글에서 김현의 비평적 명제가 '문학은 욕망(혹은 꿈)이 드러나는 자리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명제가 실제 비평 속에서 깊이를 획득한 것은 80년대 들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비평의 전략: '읽기'의 역사적 차원』, 『위반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p.58).

성적 강인함의 시라면, 서정주의 시는 여성적 부드러움의 시이며, 그의 시가 한자투성이의 고풍의 시라면, 서정주의 시는 토속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도로 살린 시이다. 그의 시가 울분·탄식·저항·질타의 시라면, 서정주의 시는 체념·한·해학·포용의 시이며, 그의 시가 남성적 연모의 시라면, 서정주의 시는 여성적 사랑의 시이다.<sup>28)</sup>

꼼꼼한 분석으로 청마 시의 재평가를 시도한 위의 글은 청마를 남성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적 강인함’, ‘울분·탄식·저항·질타’, ‘남성적 연모’와 같은 청마 시에 대한 수사들은 서정주의 ‘여성적 부드러움’, ‘체념·한·해학·포용’, ‘여성적 사랑’ 같은 수사와 대조되면서, 청마를 「찬기파랑가」, 「혜성가」, 박인로와 이육사의 계보에 귀속시킨다.<sup>29)</sup>

흥미로운 것은 청마의 시가 ‘한국시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이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김현의 설명이다. 그가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정주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마시의 고풍적인 어투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김현이 청마와 서정주를 대결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정주가 없었

28) 김현, 「『깃발』의 시학」, 『책읽기의 괴로움』(민음사, 1984), 여기서는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 1990), pp.258~259에서 인용.

29) 그러나 서정주를 여성주의로 보는 것에 대한 김현의 입장은 모호하다. 그는 “서정주의 시는 「제망매가」의 뒤를 이어, 황진이·한용운의 시적 맥락을 이은 시”라고 계보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정적 여성주의의 극복으로 서정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의 승리」에서 긍정적 여성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역사의식과 관련지어보자면 서정주의 시는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가 서정주를 긍정적인 여성주의의 계열에 놓고 있지만, 청마와 그를 대결적 구도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청마에 대한 옹호는 서정주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읽힐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

다고 하여 유치환의 작품이 당대에 반드시 인정을 받았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은 당대의 시적 공간을 성별화 논리에 따라 파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당대의 시적 공간을 투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화의 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이건, 그 반대이건 간에, 당대의 시적 공간을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그러하듯 세력 다툼하는 관계,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쪽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별화의 투쟁적이고 위계적 이원론을 세대 구분의 논리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대 단절론의 근거가 삼는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은밀하다. 김현은 해방 후 문단을 ‘서정주의 시공화국’이라고 단언하는데, 그 이유를 서정주의 작품성에서 찾기 보다는 작품 외적 원인, 특히 서정주를 택한 당대의 시인 지망생들의 체험적 특수성에서 찾는다. 즉, “국민학교, 중학교 때에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시인 지망생들은 일본어에서 익히 본 한자투성이의 유치환의 시보다, 토속어의 여성적 울림을 최대한으로 살린 서정주의 시에 이끌리게 되었고 그의 시에 매혹되어 영랑·소월의 시에 이끌려가게 되었다”<sup>30)</sup>는 것이다.

특히 한글 사용의 문제는 김현이 다른 글에서도 50년대 문학인들의 특수성으로 자주 거론한 바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은 50년대 문학인들의 한계로 제시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1971년에 쓰여진 ‘테러리즘의 문학’이다. 50년대의 문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문학 건설을 주장하는 이 글에서 그는 언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어령, 전봉건, 성찬경의 진술을 인용하면서<sup>31)</sup> 이들 50년대 세대가 겪어야 했던 언어의 문제가

30) 김현, 앞의 글, p.259.

31)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 50년대 문학 소고』, 『김현문학전집』 2(문학과지성사,



그들의 한계라고 말한다.

20세를 전후해서 해방과 전쟁을 맞이했다는 것은 50년대의 문학인들이 세계와 현실을 보는 세계전망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추측케 한다. 위의 진술은 두 가지 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언어의 급변으로 인한 의식조정의 곤란이다.(…중략…) 20세를 전후해서 해방과 전쟁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또한 감정의 극대화 현상을 유발케 한다. 논리적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적인 제스처만이 극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 현상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판단보다도, 추상적인 당위에 대한 무조건의 찬탄을 낳는다.<sup>32)</sup>

위의 인용이 보여주듯, 김현이 50년대 문학인들의 뒤늦은 한글 습득을 문제삼는 것은 언어가 단순히 표현 매체가 아니라 세계 인식의 도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현에 의하면 50년대 세대의 언어에 대한 궁핍한 체험은 감정의 극대화와 더불어 50년대 문학인들이 세계와 현실을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글 사용의 문제를 제외하면 50년대 문학인들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가 20년대 한국적 상징주의시를 비판하는 「여성주의의 승리」에서 전개하는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20세를 전후하여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이 감정의 극대화에 있다고 보는 점까지, 언어의 문제만 제외하면 50년대 문학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20년대의 부정적 여성주의에 대한 바로 그것이다.

---

1991), pp.241~242.

32) 앞의 글, p.242.

김현이 현실 구조의 정확한 파악, 즉 역사의식을 문학의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던 것은 그가 당시에 '문학의 고고학'이라는 개념으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를 적극 수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20년대 문학과 50년대 문학을 이처럼 유추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한다. "50년대 한국문학은 20년대의 한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져버린다"<sup>33)</sup>는 말로 20년대와 50년대 문학의 친연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 김현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고 20년대를 시들을 부정적인 여성주의로 규정하면서 한용운을 여성주의의 승리로서 대비시킬 때 결과하는 것은 20년대 부정적 여성주의의 청산만이 아닌 것이다. 거기에는 50년대 문학의 극복과 60년대 문학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갈망이 은밀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4)</sup>

### 3.2 근대문학의 필요조건으로서의 타자성-김윤식

역시 신문학의 발상법을 탐색하는 일환으로 쓰여진 김윤식의 글은 한국 신문학의 발상이 '서구문학과 동질화와 민족주의라는 의식의 심연이 빚어내는 갈등'에 투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한다.<sup>35)</sup>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의 발로는 김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 근대 문학의 형성과 전개를 내재적인 동력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민

33) 앞의 글, p.248.

34) "50년대의 한국 문학은 20년대의 한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져버린다. 가장 표피적인 문제로는 그에게서 추천을 받고 싶은 선배 문인이 없어진 것이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당대의 문학 지망생들로는 김동리·서정주·박목월·박두진·조지훈·김현승 등의 시인·작가들이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한국 문학을 만들어가야 할 동료에 지나지 않는다."(앞의 글, p.248).

35) 김윤식, 앞의 글, p.448.

족주의와 관련한 연구가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는 점과<sup>36)</sup> 방법론적으로 볼 때 식민지시대 작품들이 미숙하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다지 곤란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문학을 비롯한 인문 사회학적 담론에서 민족주의 논리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었으며, 그가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에서 일차적으로 추구했던 것 또한 민족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문제는 신문학 초기의 시들이 갖는 방법론적 미숙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시의 전개가 서구시와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시의 방법, 스타일, 사조 등을 포함하는 방법론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자체가 현저히 개화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식민지처리의 한국사회자체의 미숙 때문에 세계관에서 연역해 낸 서구적 방법론이 접목될 수 없었던 데서 가장 쉽게 찾아진다. 뿌리 뽑힌 방법론은 이른바 방법 및 사상의 무한포용현상에 놓이기 때문이다.<sup>37)</sup>

김윤식은 위의 글에서 근대문학을 향한 욕망이 문학적 방법론의 모색으로 이어졌지만 식민지라는 정치적·역사적 상황 때문에 “세계관에서 연역해 낸 서구적 방법론이 접목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즉, 그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그친다면 그의 타자, 그가 극복하고자 했던 아버지들, 즉 초창기 문사들과 닮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초창기 시에 퇴폐적 낭만주의, 미숙한 감상성 등의 표제를 달아 결과적

36) 앞의 글, p.456.

37) 앞의 글, p.457.

으로 “서구의 ‘본문’에 대한 ‘부록’의 상태”로 전락시킨 이식 문학론의 주창자들이었기 때문이다.<sup>38)</sup> 이는 또한 ‘한국 문학의 주변 문화성’을 극복하고 개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사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문학적 과제<sup>39)</sup>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문학사 내에 식민지 초기의 시들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

그러나 당시 중심적인 문학적 방법론이 신비평의 분석적 방법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신문학 초기의 작품들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학의 자율성과 심미성을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등장한 문학의 과학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신문학 초기시들은 감정의 과잉과 실패한 시적 형상화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비평은 지성 중심적인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도출된 방법론이었으니, 감정과 토로의 20년대 시들을 가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잣대인 것이다.

김윤식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문학외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일이다.<sup>40)</sup> 그것은 분석 대상의 시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일이며, ‘인접학문과의 공동 보조’를 적극 추진하는 일

38) 김윤식, 「식민지의 허무주의와 시의 선택: 김안서·김소월의 문학사적 위치」, 『문학사상』, 1973.5, p.270.

39) 김윤식, 「한국 문학의 인식과 방법」,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pp.36~42.

40) “이 갈등의식(서구문학에로의 동질성을 일방의 목표로 하면서도 식민지를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민족의식의 심연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이 일제시대 한국시문학과 해방문단과를 현저히 차질되게 하는 요소로 파악되며, 따라서 이 일제시대의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기준은 단순히 문학적 기준만으로는 미급(未及)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학적 기준이상을 일부분이나마 모색해 놓는다는 것은 급선무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는 시의 예언적 기능을 모색해 보았다.”(김윤식,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 p.456).

다.41)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대한 문학과 우수한 문학을 구분하는 엘리어트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문득 이 대목에서 나는 ‘문학의 위대함’(the greatness of literature)은 문학적 평가를 초월한다는 엘리어트의 지적을 상기한다. 「초혼」의 외치는 소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공허감의 환기일 때, 이미 그것은 예술의 차원을 떠난다. 민족과 종교의 동질성의 부르는 소리, ‘그 누가 나를 해내는 부르는 소리’(「무덤」)의 울림인 것이다.42)

위와 같이 시대적 특수성을 문학 평가의 기준으로 적극 끌어들이는 결과 그는 신문학 초기시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취약성을 지녔으면서도 이 시기의 시가 빛나 보이는 것은 물을 것도 없이 민족의식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이 신성한 것이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시작품이 문학적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43)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민족의식이라는 문학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신문학 시기 시들이 지니고 있는 작품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편향적인 것은 그의 이러한 논리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단서는 김윤식이 민족의식을 갖춘 시 모두를 긍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해방기념시집」에 담긴 시들을 매우 가치평하 하는데, 이들 작품들은 ‘무명화’, 즉 민족의식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이다. 즉, ‘해방 전의 시들에서 한

41) 김윤식, 「식민지의 허무주의와 시의 선택」, p.279.

42) 앞의 글, p.285.

43) 앞의 글, p.457.

번도 발음되지 못한 ‘조국’, ‘대한’, ‘독립’, ‘만세’ 등등의 명칭’으로 무명화를 환원함으로써 시인들은 ‘정녀’에서 ‘창녀’가 되었다고까지 말한다. 그는 청록파 또한 무명화의 자리에 생명이란 것을 대치한 경우로, 한국시의 퇴행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44)</sup> 민족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의 문학적 가치를 민족의식의 형상화 방법으로 가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족의식이라는 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성성의 메타포를 이용함으로써 미적 성취를 동시에 담지하고 있는 작품만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윤식에게 있어 여성적인 것이 민족주의에 대한 미적 상관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의 타자라는 사실이며, 이들 간의 역학이다. 김윤식은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에 의해 타자로 규정되어 평소에는 은폐되어 있다가 위기의 시기에 비로소 표면으로 드러나며, 그 여성적인 것이 신비롭고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성별화의 역학 관계를 민족주의와 파시즘, 혹은 민족주의와 영웅주의의 관계에 고스란히 적용한다. 그와 같은 논리는 민족주의라는 강력하고도 신비한 이념적 힘을 신문학 초기 작품들에 귀속시킴으로써 그동안 폄하되어 오던 작품들이 문학사에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타당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의해 문학이 도구화될 위험을 차단하는 방패막이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성의 타자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여성을 영원히 불가지의 모호한 혼돈 상태, 죽음과 두려움의 근원, 남성으로 대표되는 인류에 대한 타자로 고착화시켰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4) 앞의 글, p.454.

#### 4. 결론

이 글은 초기 식민지 시대의 시를 여성성의 메타포로 설명하는 두 편의 비평에 대해 그 여성화 전략의 의미를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다른 시기가 아니라 하필이면 1960년대 말에 초기 식민지 시대의 시작품들을 여성적이라고 규정하는 논의들이 잇달아 생산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시기는 4·19 이후 등장한 세대들이 자신들을 전후 세대와 공공연하게 차별화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드높이던 시기였으며, 60년대 중반부터 사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주체적 민족 사관의 영향을 받아 문학계에서도 근대 문학 형성의 기원을 내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정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여성 이미지와 메타포는 그들의 비평에서 다분히 전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현의 경우, 여성성은 전형적인 위계적 이분법 안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여성성의 관념은 50년대 세대를 극복하고 60년대 세대인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간접적으로 동원된다. 이는 50년대의 문학인 혹은 문학적 경향을 20년대의 그것과 유추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수행된다. 50년대 문학에 대한 그의 기술들은 20대 부정적 여성주의의 시들에 대한 기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20년대의 부정적 여성주의가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처럼, 이러한 유추의 결론은 50년대의 문학적 경향을 60년대 세대의 타자로 정립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편 김윤식 역시 신문학 초기의 시들을 여성편향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그가 주목하고 있는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에 의해 혼돈과

죽음으로 배제되지만 남성적인 것의 전형인 억압적 파시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는 이 여성적인 것의 부정성, 혹은 타자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이와 같은 여성성의 개념을 빌어 종래에 비판받던 신화학 초기의 시 일단을 당당히 문학사로 재편입시킴으로써 주체적인 문학사 구축의 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sup>45)</sup>

김현과 김윤식은 성별화의 전략을 주체적이며 자생적인 근대성을 구축하는 담론 생산에 동원하고, 이를 통해 그들 각각의 문학적 정체성을 구축해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적인 것은 김현의 경우, 부정적인 타자로서의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김윤식의 경우, 여성성의 타자성을 적극 긍정하기는 하나 오히려 여성성의 타자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45)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령, 김현이 20년대 시를 여성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한용운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이유가 정서의 절제와 초월을 강조한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서의 절제와 초월, 즉 부정적인 여성주의의 극복은 '미학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60년대 이후 형식주의의 영향과도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시들이 생산되던 1920년대 담론의 장이 조선심을 강조하는 언설들과 카프 진영의 언설들로 팽팽하게 분할되어 있었던 것처럼,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그와 유사한 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시의 책임과 기능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문학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민중과 민족의 이데올로기, 혹은 시대와 역사와 관련 하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학사적 관심사와 별개로 장르론적인 관점에서 성별화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계속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윤식, 「식민지의 허무주의와 시의 선택: 김안서·김소월의 문학사적 위치」(《문학사상》, 1973.5).
- \_\_\_\_\_, 「한국 문학의 인식과 방법」,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 \_\_\_\_\_, 「한국시의 여성적 편향」, 『근대한국문학』(일지사, 1973).
- 김 현, 「여성주의의 승리」, 《현대문학》 178, 1969.10.
- 김 현, 「태러리즘의 문학: 50년대 문학 소고」, 『김현문학전집』 2(문학과지성사, 1991).
- \_\_\_\_\_, 「『깃발』의 시학」,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 1990).

2. 이차자료(단행본 및 연구 논문)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책세상, 2001).
-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구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호(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 권성우, 「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문학과 비평 연구회 편, 『1960년대 문학연구』(예하, 1993).
- 김용직, 「시문학과 연구」, 이재선 외, 『한국근대문학연구: 일반문학적 고찰』(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 김형수, 「김현 비평의 세대론 전략과 타자의 존재」, 『사립어문연구』, 제13집(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립어문학회, 2000).
- 백 철,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80).
- 이광호, 「비평의 전략: '읽기'의 역사적 차원」, 『위반의 시학』(문학과지성사, 1993).
- 이명원, 『타는 혀』(새움, 2000).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성문각, 1969).
- Felski, Rita,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거름, 1998).
- Morris, Pam,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53.
- Weeks, Jeffrey,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현실문화연구, 1994).

Abstract

**A Strategy of Sexualization in Criticism of the early Modern Korean Poetry**

— Focusing on Early Poetic Criticism of Kim, Hyun and Kim, Yoon-Sik

Yoon, Ji-Young

The latter of the 1960s, there were many critic discours which described poetry during the early Japanese Imperialism as rhetoric of female. What those kinds of critic discours were produced on that period of all others is the effect of the discours made in 1960's, and the strategy of the making discours.

In the cass of Kim-Hyun's criticism about 1920's sentimental poetry, feminity includes the negative status in the type of hierarchical dichotomy in gender. These idea of feminity is applicable to generation of 1960's to overcome the generation of 1950's and make clear of their own identity. It is possible to go through with their work by an analogy the literature tendency of 1950's and that of 1920's.

In the case of Kim, Yoon-Sik, the alterity of feminity are accepted positively. Though the feminity is excluded as chaos and death normal, it is the only one which can resist the fascism as the type of masculinity, And it is the objective correlative which can hold the aesthetic value of the early modern poetry. He could solve the problem in the project to describe the independent history of literature by grant admission to poetry

which had been devaluation.

In conclusion, they constructed each their literary identity by including gendered strategy in their critic discours.

**key words** : early modern korean poetrym critic discours, sexualization, feminitym nationalism, hierarchical dichotomy, alterity.

■ 위 논문은 4월 5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